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7 권 제 2 호 1989

韓國의 家族意思疏通硏究에 대한 考察

Review on the Family Communication Research in Korea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金 順 玉

Dept. of Home Management
Sugn Kyun Kwan University
Prof. : Soon Ok Kim

목 차

Ⅰ. 考察의 目的
Ⅱ. 考察의 範圍 및 方法
1. 考察의 範圍
2. 考察의 方法
Ⅲ. 考察의 結果
1. 硏究方法 考察
2. 硏究結果 考察
Ⅳ. 結論 및 提言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reviews research on family communication in Korea. The 51 literatures which had been published till 1988 are used to review.

The review includes brief summaries of literatures in methodological issues and research findings classified into five major domains ; theoretic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 relation to human development, family communication in home management, and the use of family communication in family therapy.

Some of the major conclusion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1) Family communication research has short history since it begun in 1973.

2) Research method used is almost the survey research.

3)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earch findings because of the short of research and the unexquisiteness of methodology, but it is possible somewhat to understand family communication in Korea.

Ⅰ. 考察의 目的

토지중심의 안정된 농경사회에서 이동이 필요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초래된 家族의 不安定性은 개인 및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家族에 대한 學問的 關心은 고조되어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urr와 Leigh(1983)는 가족에 관한 연구가 독립된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정립될 만큼 양적 질적으로 축적되었다고 하면서 家族學(famology)이라는 용어를 주장하였다. 韓國에서도 家族에 대한 硏究는 각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조은(1986)은 가족연구가 심리학으로부터 역사학에 이르는 그리고 가족의 임상치료에서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및 영역을 포괄한다고 하였으며 안병철(1986)은 가족분야도 이제 세분화되어서 가족전반에 걸쳐 기존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학문분야에서 분산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를 가족현상의 영역별로 종합 정리하는 것은 家族硏究를 發展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현상 중의 하나인 家族意思疏通은 가족원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원간의 이해는 수용을 유발하며, 상호수용된 가족원간의 관계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만족 또한 클 것이다. 그러므로 家族意思疏通은 가족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져 이에 대한 硏究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구된 가족의사소통 관련논문을 考察하여 현재의 가족의사소통연구실적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Ⅱ. 考察의 範圍 및 方法

1. 考察의 範圍

意思疏通(communication)에 대한 定義는 견해에 따라 다양하다. 즉 Lin(1973, 3-9)은 인간의사소통(human communication)의 정의는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접근하는 관점으로 영역적 접근, 과정적 접근, 기능적 접근이 있다고 하였으며 金良喜(1989, 145-146)는 이와 유사한 분류인 기술적, 의미적, 효과적 영역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의한 개념을 인용하면서 세 관점을 종합하여 커뮤니케이션이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Galvin과 Brommel(1982, 6)은 의사소통을 상징적 거래적 과정 또는 의미를 창조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하며 Weiten(1986, 238)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

本 硏究에서는 이상의 정의에 근거하여 家族意思疏通은 가족원간의 相互作用的인 過程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을 選定하기로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표출 및 전달, 자기개방, 의사소통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의 언어적 태도 등의 연구논문은 제외하기로 한다.

2. 考察의 方法

考察의 方法은 선정된 연구논문들을 어떻게 分類하여 어떠한 점을 검토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연구논문들의 분류 이전에 고찰하고자 하는 논문의 선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家族意思疏通에 관한 연구논문의 여부는 논문의 내용보다는 論題名으로 판단하며 1988년까지의 논문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에 의하여 가족의 사소통에 관한 연구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사회학 분야와 가정학 분야에서 가족연구를 고찰한 문헌목록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연구자가 학회지와 각 대학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조사하였다. 사회학, 가정학 분야의 문헌목록을 살펴본 이유는 가족연구의 경향때문이다. 즉 산업사회에서는 사회학자, 정신의학자, 인구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역사학자들이 가족연구를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학자, 인류학자, 경제학자들이 가족연구를 하고 있는데(Hill 1980, 191) 韓國의 경우는 주로 사회학자, 인류학자, 가정학자들이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韓南濟 1984, 46).

먼저 社會學 분야에서 인류학 분야를 포함하여 고찰한 가족연구문헌목록을 살펴보면 崔在錫(1970, 692-701)은 1900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국가족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는데 1900년부터 1945년전까지는 社會學, 法制史, 家族法, 民族學의 문헌을 포함하고 1945년이후의 문헌은 주로 사회학관계 학술논문및 저서를 포함하였다. 이 고찰에서는 1965년까지의 가족연구 경향이 주로 거시적인 연구로 가족의사소통에 관한 문헌은 한 편도 없다. 그 후 韓南濟(1984, 103-115)는 1960년부터 1984년까지의 가족에 대한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는데 일부 인류학자의 연구업적을 포함하면서 주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검토에서는 李根厚·李東瑗(1973)의 「都市家族內의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에 關한 硏究」라는 논문 1편이 나타나있다.

다음으로 家政學 분야에서의 가족연구 문헌목록을 살펴보면 大韓家政學會에서 1977년에 편찬한 「家政學硏究의 最新情報 ; 兒童學·家族關係」에서는 1960년부터 1977년까지의 가족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는데 가족의사소통에 관한 논문이 한 편도 없으며, 1984년에 편찬한 「家政學硏究의 最新情報 II ; 兒童學·家族關係」에서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의 연구논문을 고찰하였는데 가족의사소통에 관한 논문이 4편 수록되어 있다. 그 후 1989년에 한국가족학연구회에서 발간한 「가족학 논문목록」에는 가족의사소통에 관한 논문이 前述된 논문 외에 26편이 더 수록되어 있다.

요약하면 가족관련문헌을 조사연구한 崔在錫(1970), 韓南濟(1984), 大韓家政學會(1977, 1984), 한국가족학연구회(1989)의 문헌목록을 통하여 1988년까지의 가족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1973년의 李根厚·李東瑗의 논문을 최초로 하여 총 31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本 硏究者가 학회지와 각 대학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토하여 前述한 문헌목록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21편의 논문을 더 수집하였다*.

수집된 52편(문헌목록으로부터 31편, 本 硏究者가 조사한 21편)의 논문에서 同一論者의 2편의 논문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1편으로 간주하여 51편의 논문을 考察對象으로 정하였다.

51편 논문을 ① 理論的 理解를 위한 연구(4편), ② 家族關係 측면에서의 연구(34편), ③ 人間發達 측면에서의 연구(8편), ④ 家庭管理 측면에서의 연구(1편), ⑤ 家族治療 측면에서의 연구(4편)라는 5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논문의 영역 구분은 주된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考察의 結果

1. 硏究方法 考察

각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하여 보면 일부의 논문들만이 文獻硏究方法(朴春雨 1978 ; 朴宗三 1982a, 1982b ; 馬正健 1983 ; 朴琪淳 1984 ; 趙殷卿 1984, 1987 ; 강혜원 1987)과 實驗硏究方法(辛玉順 1981 ; 李順炯 1981 ; 李眞姬 1984 ; 李廷燮 1985)과 事例硏究方法(김정현 1986)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논문들(51편 중 38편)은 질문지에 의한 調査硏究方法을 사용하였다.

연구영역별로 구분하여 연구방법을 비교하면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한 연구와 가족치료 측면에서의 연구는 모두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가족치료연구에서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김정현 1986)가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 측면, 인간발달 측면, 가정관리 측면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일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연구(李眞姬 1984 ; 李廷燮 1985)와 인간발달 측면에서의 연구(辛玉順 1981 ; 李順炯 1981)는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에서 표집하였으며 단 3편의 연구(昔鉉洋 1983 ; 李眞姬 1984 ; 李香蓮 1986)에서만 市이외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雙으로서의 표집을 적용한 연구들(辛玉順 1981 ; 李順炯 1981 ; 元曉鍾 1984 ; 李眞姬 1984 ; 李廷燮 1985 ; 李貞順 1985 ; 金仁淑 1988 ; 王錫旬 1988)도 있다.

上記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최선을 다하여 수집하였으나 발표된 논문 중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논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표 1. 고찰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영역		발표자	발표년도 (조사년도)	연 구 방 법	연 구 대 상
이론적 이해측면		박종삼	1982	문헌연구와임상재료분석	
		박기순	1984	문헌연구	
		조은경	〃	〃	
		조은경	1987	〃	
가족관계측면	가족전체	김경숙	1982(1981)	질문지에의한 조사연구	강릉시 주부 156명
	부부관계	이근후 · 이동원	1973(1972)	질문지에의한 면접조사연구	도시주부 250명
		권정임	1982(1981)	질문지에의한 조사연구	대구시 40대주부 489명
		박경자	〃 (〃)	〃	서울시 주부 660명
		박종삼	1982	문헌연구와 임상재료분석	
		이정순	1982(1982)	질문지에의한 조사연구	서울시 부부 495명
		김은숙	1983(〃)	〃	서울시 기혼남녀 607명
		김쟁산	〃 (1983)	〃	부산시 주부 400명
		이정우 · 안동선	〃 (1982)	〃	전국도시주부 570명
		조혜정	〃 (〃)	〃	광주시 부부 636명(310명**)
		김경숙	1984(1983)	〃	강릉시 주부 112명
		원효종	〃 (〃)	〃	서울시 부부 141쌍
		이정우·안동선	〃 (1982)	〃	전국도시주부 570명
		박민숙	1985(1984)	〃	서울시 주부 183명
		송성자	1985(1984-1985)	질문지에의한 면접조사연구	서울시 주부 150명
		이정순	〃 (〃)	질문지에의한 조사연구	서울시 부부 179쌍
		정용재	〃 (1985)	〃	서울시 부부 377명
		송말희	1986(〃)	〃	서울시 주부 437명
		이창숙	1987(1987)	〃	서울시 기혼남녀 504명
		홍신례	〃 (1986)	〃	대구시 기혼남녀 430명
		김인숙	1988(1987)	〃	서울시 부부 188쌍
		왕석순	〃 (1988)	〃	서울시·부평시 부부 248쌍
		이기숙	1988(1987)	〃	부산시 주부 582명
		허윤영	〃 (〃)	〃	대구시 남편 208명
	부모자녀 관계	장근화	1980(1979)	〃	광주시·목포시 여중2~여고2 400명
		김진숙	1983(1983)	〃	서울시고2 남녀의 어머니 448명
		윤정명	〃 (*)	〃	진주시 중2 남녀 339명
		이진희	1984(*)	녹음후분석한 실험연구	서울시·경기도의 4, 5세 남녀아와 어머니 32쌍
		이연섭	1985(1984)	〃	5,6세 남녀아와 어머니 32쌍
		이향련	1986(1985-1986)	질문지에의한 조사연구	경남중소도시·읍 여고2 668명
		정혜영	〃 (1986)	〃	서울시 고1·2 남녀 293명
		오연옥	1987(1987)	〃	서울시중3 남녀 432명

연구영역	발표자	발표년도 (조사년도)	연 구 방 법	연 구 대 상
	이석경	〃 (1986)	〃	대구시 고2·남녀 746명
	장호선	〃 (〃)	〃	서울시 중2·고2 남녀 229명
인간발달측면	임병랑	1978(*)	〃	서울시 국5·중2·고2 남녀 1440명(425명*)
	신옥순	1981(*)	검사를병행한 실험연구	서울시 유치원생 남녀와어머니 40쌍
	이순형	〃 (1981)	조사실험연구	서울시 유치원생 국2와 어머니 80쌍
	석현양	1983(*)	질문지에의한 조사연구	경북상주군 중2남 238명(150명**)
	신양재	1986(*)	〃	서울시 국5 남녀 310명
	김정희	1987(1987)	〃	의정부시 중3~고2 남녀 561명
	백인숙	〃 (〃)	〃	청주시고2 남녀 445명(275명**)
	김은심	1988(1988)	〃	J시 병원환자와 내담자 부인 150명
가정관리측면	두경자	1986(1986)	〃	서울시·천안시·부천시 주부 209명
가족치료측면	박춘우	1978	문헌연구	
	마정건	1983	〃	
	김정현	1986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3가족
	강혜원	1987	문헌연구	

*; 조사년도가 밝혀지지 않았음.

**; 연구대상중에서 재선정하여 분석한 사례수임.

2. 研究結果 考察

고찰대상논문들의 연구결과를 5영역으로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결과 서술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인용할 때는 되도록 각 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理論的 理解를 위한 研究

가족의사소통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 연구(朴琪淳 1984)에서는 가족커뮤니케이션의 性格, 歷史的 發達過程, 理論, 重要槪念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은 2가지 요소에 의하여 파악되는데 2가지 중요한 요소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what is said, communication, message)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되어지는 방법(the way it is said, metacommunication, metamessage)이다. 이 2가지요소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및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둘째, 가족커뮤니케이션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가족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臨床醫에 의하여 미국의 Palo Alto에서 그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초기에는 正常家族이 아니고 정신병환자가 있는 非正常的 家族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로 정신병치료전문가들에 의해서 槪念化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점차 正常家族에 초점을 맞춘 가족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가족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으로는 시스팀적 接近方法, 相互去來的 分析, 交換理論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가족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개념들로는 反復性, 對稱的·補充的 커뮤니케이션 樣相, digital과 analog 커뮤니케이션, double bind, communication과 metacommunication, 均衡, 피드백등이 있다.

機能論的 觀點에서 가족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연구(趙殷卿 1987)에 의하면 기능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이나 상호거래로서

家族 시스템을 구성 유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확립 지속 종결시키며 가족의 기능을 응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適應機能의 중심이 되며, 關係形成을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미지 가족테에마 가족이 바라는 응집성의 정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강화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戰術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응집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족은 다른 가족원을 억압함이 없이 친밀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模型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 趙殷卿(1984)은 가족커뮤니케이션의 力學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機能的인 家族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의 깊이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한계를 고찰하였다. 고찰된 내용은 가족커뮤니케이션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안에서 相互依存關係를 발전시키는 한정된 매체를 통하며 메시지 모형의 흐름에 의하여 응집과 적응을 조절하고, 家族은 문화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구조안에서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발전시키므로 커뮤니케이션과 가족의 발전은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문헌에 의한 이해만이 아니라 實證을 통한 理論化 硏究(박종삼 1982b)도 있는데 임상적 재료인 한미국제결혼상담을 기초로 하여 미국남편과 한국부인간의 언어소통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때 오해 곡해 위축현상이 나타나며 상이한 문화적 배경은 동일한 개념에 대한 의미의 차를 나타냄으로 의사교통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여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은 의사전달갈등을 이론화하였다.

2) 家族關係 측면에서의 硏究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는 전체 51편 중 34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분하여 보면 가족전체에서의 의사소통연구는 1편,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연구는 23편,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연구는 10편이다.

(1) 가족전체에서의 의사소통

金慶淑(1982)에 의하면 가정의 의사소통을 위한 분위기는 엄격한 편이며, 대화장소는 주로 안방이고, 대부분 저녁시간에 함께 모여 30분~1시간 30분 정도의 대화시간을 가지며, 가족간의 대화를 위한 모임을 1주에 1회이상 갖는다. 가정의 의사소통내용으로는 자녀문제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일상생활 경제문제의 順이다. 가정의 의사소통형태는 참여자 모두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부가 대화에 가장 많이 참여하며 집안행사와 친척관계에는 조부모가, 오락 및 여가에는 자녀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참여자의 의견 반영율은 높은 편이다.

(2)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연구경향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먼저 부부간의 의사소통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내용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내용, 빈도, 방법 및 유형, 만족도, 불안의식, 이해도 및 일치도, 효율성등이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부부간 의사소통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內容은 子女들에 관한 문제이며 다음이 부부의 하루생활이다. 性問題에 관한 의사소통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부중심적이기 보다는 자녀중심적인 즉 가족 및 혈연중심적인 대화가 많다. 특히 가족주기 3단계부터 부부중심대화에서 자녀중심대화로 바뀐다(李根厚 · 李東瑗 1973 ; 이기숙 1988).

②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부둘이만 있는 시간은 평일 1~2시간, 휴일 3시간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하여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어서 부부커뮤니케이션 빈도는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이다(李根厚 · 李東瑗 1973 ; 權貞任 1981 ; 이정우 · 安童善 1984). 紆瑀

부부 커뮤니케이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서울시 주부가 지방도시 주부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자녀수가 많은 주부가, 결혼전 부모와 개인적 얘기를 비교적 많이 한 주부가,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중류인 주부가, 연애혼의 주부가, 부부가족보다는 직계가족의 경우에, 의사소통교육을 수강한 부부가, 남

편의 직업이 회사원 은행원 사무원일 때 부부의사소통 정도가 높다(이정우·安童善 1983； 金慶淑 1984； 朴慶子 1981； 鄭用才 1985)

③ 부부간 의사소통방법 및 유형에 있어서는 부부 모두 얘기를 잘 하며 言語보다는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으며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感情露出이 많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선택의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채널 방향성은 상호방향성이다. 일반 가정에서의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권위형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타인지향형으로,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권위형 성실형 타인지향형 희생형 분석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문제가족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남편과 부인이 일치되지 않고 남편은 권위지향적 불성실지향적 희생지향적 지배지향적 유형이며, 부인은 지배지향적 소심지향적 불성실지향적 희생지향적 유형으로 나타났다(李根厚·李東瑗 1973； 元曉鍾 1984； 이기숙 1988； 李昌叔 1987； 宋聖子 1985).

夫婦意思疏通樣式은 性 敎育程度 職業 結婚期間 家族週期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부인이 남편보다 대화를 시작하고 더 감정적인데 비하여 남편은 부인보다 주로 이기는 편이며 대화중 말문을 닫는 편이다. 그리고 남편은 분석형 차단형을, 부인은 희생형을, 고학력일 때는 친숙형을, 전문 관리직 남편은 친숙형을, 결혼기간이 9~20년일 때 친숙형을, 가족주기 1, 2단계에서는 개방적 대화유형을 더 사용한다(이정우·安童善 1984； 元曉鍾 1984； 李昌叔 1987； 이기숙 1988).

④ 부부간 서로 배우자에게 희망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정도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지만 주부가 인지한 부부커뮤니케이션의 평가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며, 40代 주부의 대부분은 대화시간과 내용에 대체로 滿足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 요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다(이정우·安童善 1984, 1983； 權貞任 1981； 李根厚·李東瑗 1973).

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이루어져 있어서 意思疏通不安意識程度는 비교적 낮다(李根厚·李東瑗 1973； 元曉鍾 1984). 그러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는 의사소통의 갈등이 나타난다(박종삼 1982a).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전문관리직이거나 사무직일 때, 교육정도가 높을 때, 고소득일 때, 중매혼보다 연애혼일 때, 결혼지속기간이 25년미만보다는 25년이상일 때, 부부 의사소통양식이 개방형이거나 서로 일치할 때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낮다(元曉鍾 1984； 王錫旬 1988).

⑥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理解度는 대부분 중이상의 정도를 나타냈으며 부부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理解度도 양호한 편이다.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결혼지속년수가 5년이하이고, 자녀수가 적으며, 부부 서로 이야기를 잘 하며,대화시간이 길고, 결혼생활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가족주기 2단계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해도가 제일 높으며, 부모가 결정한 중매혼일 때는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가 낮다(송말희 1986； 이기숙 1988； 李貞順 1982； 許允瑛 1988).

부부커뮤니케이션 一致度 역시 이해도와 비슷한 경향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 일치도가 높은 집단의 특성은 생활비가 많으며, 부부 서로 이야기를 잘 하며, 대화시간이 3~5시간이며, 결혼생활만족이 높다(이정우·安童善 1984； 李貞順 1982).

그리고 부부 커뮤니케이션 一致度가 높을수록 理解度가 높아진다(李貞順 1982).

⑦ 效果的 意思疏通을 하는 부부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수입이 많으며, 부부의 학력이 높고, 자녀수가 적고, 부부의 연령차이가 적으며, 부부공동형의 의사결정형태이고, 부부 모두 대화욕구가 많고 대화를 잘 하며, 화제가 다양하고 일치되며, 대화시간이 더 길고 충분하다고 느끼며, 부인 남편 가정생활의 일 대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남편이 관심을 표현하며, 부부 같이 외출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의사소통만족정도가 크며, 남편에 대하여 만족한다(박민숙 1984； 曺惠晶

1983 ; 洪信禮 1987).

다음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그 影響을 파악한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結婚滿足과 관련된 연구이며 가족문제, 갈등처리와 관련된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을 뿐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夫婦間 意思疏通과 結婚滿足 間에는 유의한 相關關係가 있다. 즉 부부간에 대화가 충분하며 의사소통정도가 높을 때,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고 정확히 知覺하며 그 知覺이 부부간에 같을 때, 부부 모두 말을 잘 하는 경우에, 부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의견대립시 대화로서 해결하는 경우에, 남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않고 부인의 의사를 많이 수용하는 경우에, 非對話時 마음상태가 불편 또는 답답하지않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호율도가 높을 때, 의사소통유형이 기능적인 친숙형 의견형일 때,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이며 개방의 정도가 부부 동일할 때, 부부간에 유사한 양의 감정이 교환될 때,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낮을 때, 가족주기가 신혼기일 때에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權貞任 1981 ; 朴慶子 1981 ; 金恩淑 1983 ; 金慶淑 1984 ; 鄭用才 1985 ; 李貞順 1985 ; 송말희 1986 ; 김쟁산 1983 ; 洪信禮 1987 ; 金仁淑 1988 ; 王錫旬 1988).

② 한국 문제가족에서 사용하는 逆機能的 意思疏通類型 중 남편의 권위지향적, 불성실지향적 의사소통유형과 부인의 희생지향적 의사소통유형이 家族問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宋聖子 1985).

③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는 갈등처리와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언쟁, 폭력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다. 즉 남편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이해도가 낮을수록 갈등처리는 의논보다도 언쟁이나 폭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許允瑛 1988).

(3)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연구는 대부분 青少年期子女와 父母와의 意思疏通에 대한 연구이며 幼兒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이 1편, 어머니와 幼兒 간의 언어상호작용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1편 있을 뿐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青少年期子女는 父母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거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특히 同性父母와의 대화를 더 필요로 한다. 또한 부모가 대화하려고 애쓰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를 하는 정도는 높다고 자녀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다(張權花 1980 ; 尹政明 1983 ; 李香蓮 1986). 父母와의 대화는 저녁때에 안방에서 주로 어머니와 30분내외로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자녀는 어머니와는 대화를 잘 하고 있는 편이지만 아버지와는 대화를 잘 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하면 同性의 父母子女間에 의사소통정도가 더 높다. 그리고 대화의 主內容은 학교생활 진로문제이며 性問題 性役割 身體發達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화유형은 충고 해결제시형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설교 훈계형, 비판형의 경향이면서도 자녀의 정당한 의견은 부모가 반영하는 편이다(金鎭淑 1983 ; 李香蓮 1986 ; 李錫炅 1987 ; 丁惠英 1986) 한편 청소년기자녀는 대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좋으며 대화목적을 잘 인식하지만 자기의 의사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하여 부모자녀간의 이해를 돕는 대화의 내용과 정도는 크게 결여되어있다(李香蓮 1986 ; 尹政明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만족하는 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吳蓮玉 1987).

청소년기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도시부모가,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화 노력을 더 많이 하며(李香蓮 1986) 부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에,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어머니 연령이 50세이상보다는 50세이하일 때, 자녀가 장남 장녀일 때 대화가 더 잘 된다(金鎭淑 1983 ; 丁惠英 1986 ; 李錫炅 1987) 특히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 친구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부모와의 대화욕구가 강하면서 자유롭게 충분히 쌍방적으로 대화를 나눌수록, 의견충돌이 적고 흥미화제가 일치할 때에 더 잘 이루어진다(張好善 1987) 지역별로 비교하면 도시부모는 설교 훈계형, 충고 해결제시형이 더 많고 농촌부모는 지시 명령형, 비판형이 더 많다(李

香連 1986). 사춘기 자녀의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녀(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더 높다(吳蓮玉 1987 ; 丁惠英 1986).

② 어머니들의 幼兒에 대한 언어형태는 짧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는데 상류계층 어머니가 하류계층 어머니보다 질적 수준이 높으며, 어머니의 언어형태와 幼兒의 언어능력은 대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李眞姬 1984).

② 바람직한 언어상호작용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 6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실시 전에 비하여 실시 후의 어머니들의 언어에서 권위지향적인 말의 사용 비율은 감소하고 인지지향적인 말의 사용 비율은 증가하여 언어상호작용 훈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李延燮 1985).

3) 人間發達 측면에서의 硏究

가족의사소통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兒童期, 靑少年期, 中年期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兒童期發達에 있어서

母·子女間 相互疏通의 質과 兒童의 感情眺望能力, 復合感情眺望, 感情眺望의 明暗등에서 비교적 높은 相關을 보인다. 즉 母·子女間 相互疏通이 민주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認知發達이 촉진되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思考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李順炯 1981) 의사소통경험을 보다 많이 가지고 부모의 언어적 통제가 개인의 觀點, 性向, 狀況中心的일수록 아동의 役割眺望能力이 높게 나타난다(愼良宰 1986) 그리고 어머니-아동간의 상호작용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아동의 槪念化 樣式은 分析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시를 명령보다 권유적으로, 의견제시를 斷定的인 방법보다 提案的인 방법으로, 행동통제를 간섭적인 방법보다 허용적인 방법으로, 호기심을 억제하기보다 유발할수록,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촉진할수록 아동은 分析的인 槪念化 樣式을 가지게 된다(辛玉順 1981)

② 靑少年期發達에 있어서

어머니와 청소년기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자녀의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이 있어 쌍방통행식일수록 자아개념점수가 높아지며(金正姬 1987) 자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尹政明 1983). 家庭의 意思傳達形態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槪念性 指向[토의지향성]이 강할 때 정치태도 중 정치신뢰, 정치참여, 정치적 흥미 및 관심이 높고 자아행동, 자아동일성, 자아수용이 높아지고 대체로 자아실현이 잘 된 반면에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양보, 언급회피, 자기억제등을 강조하는 社會性 指向[순종지향성]이 강할 때는 정치태도 중 시민의무감이 높으며 자아행동, 자아 동일성, 자아수용이 낮아진다(林炳郎 1978 ; 昔鉉洋 1983 ; 白仁淑 1987).

③ 中年期 특징에 있어서

부부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부인의 정신 신체증상 호소양상은 77문항이며, 가장 많은 호소는 "식은 땀이 흐르고 한기가 들 때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떨리거나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정신집중이 안되고 산만해진다"인데 특히 남편의 의사소통유형이 권위지향형일 때 부인은 가장 많은 증상을 호소한다(김은심 1988).

4) 家庭管理 측면에서의 硏究

가족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주부의 家庭管理行動은 우수한데 특히 딸과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주부집단이 남편이나 아들과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주부집단보다 우수하다(杜慶子 1986). 그리고 家庭管理過程인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정도는 통제과정에서 가장 높고 평가과정에서 가장 낮다(朴慶子 1981).

5) 家族治療 측면에서의 硏究

가족의사소통과 관련된 가족치료의 연구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과 치료방법에 대한 것이다.

① 의사소통가족치료모델의 歷史的 發展過程은 3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졌다. 즉 1단계는 1850년~1920, 30년의 가족연구시작단계로 의사소통가족치료모델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기본 진단적인 개념을 제공하였다. 2단계는 1920~1950, 60년의 가족이론형성단계인데 진단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가족치료의 개입시점을 제공해주는 단계로서 의사소통가족치료모델발전에 기여하였다. 3단계는 1950년경이후 현재

로 Jackson, Haley, Satir 등이 중심이 되어 가족문제의 원인이 의사소통에 있다는 공통된 견해위에 의사소통가족치료모델을 가족문제에 실천적으로 적용시켜 발전되고 있다(강혜원 1987).

② 가족의사소통과 관련된 家族治療方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만이 病理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하고 있는 가족전체 인간관계의 구조와 역동의 외곡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부적응행동치료는 가족치료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의 人間關係 力動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과정에 의하여 표현되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家族治療過程에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과정과 양식을 발견하여 교정되어져야 한다(馬正健 1983). 다시 말해서 家族內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가족은 정서적 불안, 결탁이나 소외등의 구조적 결함 등 많은 문제를 갖게 되므로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적 형태는 역할연기법, 모델기법, 심리극법, 주장반응, 행동연습법, 행동계약법, 혐오요법, 負의 연습 등의 행동수정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朴春雨 1978).

특히 부부사이에 불일치하고 불명확한 의사소통이 반복되어지면 부부관계는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원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으로 변화시켜 부부 각자의 성숙을 도모하고 부부관계를 평행적인 관계로 재구조화해야 하는데 이 때 의사소통가족치료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김정현(1986)은 satir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된 의사소통가족치료이론과 치료기법을 우리나라 3쌍의 부부 사례에 적용하여 각각 8회, 3회, 7회의 상담을 실시한 결과 3사례 중 2사례에서 비교적 단시일내에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 意思疏通 家族治療理論의 實證的인 效果를 확인하였다.

Ⅳ. 結論 및 提言

韓國에서의 家族意思疏通 研究를 理解하는 데에 目的을 두고 1988년까지의 기존의 문헌목록, 학회지, 각 대학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토하여 관련된 논문 51편을 수집한 후 研究方法과 研究結果를 考察하였다.

고찰된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릴 수 있겠다.

1)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1973년의 논문을 시작으로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19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研究의 歷史가 매우 日淺하다고 할 수 있다.

2)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대부분 調査研究方法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논문에서만 文獻研究方法과 實驗研究方法을 적용하였다. 또한 조사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그 對象이 서울시 거주자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연구의 설계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研究結果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연구설계와 관련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찰된 연구결과들로부터 一般化된 理論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의미있는 연구들이므로 한국 가족의사소통의 일부는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된 구체적인 내용은

① 가족의사소통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그 성격, 역사적 발달과정, 이론, 주요개념, 기능론적 관점 등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②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는 대부분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부부관계에서의 연구는 그 실태와 부부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主內容이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 실태가 主內容이다.

③ 인간발달 측면에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는 대부분이 兒童의 眺望能力과 青少年의 自我와 관련된 내용이다.

④ 가정관리 측면에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는 더욱 부족한데 가족의사소통실태와 가정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다루었을 뿐이다.

⑤ 가족치료 측면에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는 주로 문헌적 연구로 의사소통가족치료모델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의사소통가족치료이론의 실용성을 그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상의 結論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가족의사소통연구를 위한 提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사소통에 대하여 다양한 理論的 見解(예를 들면 기능론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갈등이론, 가족발달론, 거래분석이론 등)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둘째, 硏究의 主題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다루어(예를 들면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기자녀만이 아니라 全發達段階에서의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을 여러측면에서 분석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硏究方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예를 들면 관찰법, 검사법 등) 가족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한다.

넷째, 연구에서의 調査對象을 다양한 계층(예를 들면 사회문화경제적 또는 연령 등의 여러 계층)으로 확대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적합한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높이도록 한다.

本 硏究는 이해를 위한 정리에 그치고 논평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意義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혜원：의사소통가족치료모델 발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 權貞任：夫婦間의 對話를 通한 結婚生活의 滿足度； *40*代 主婦의 學力別로 나누어 본 滿足度.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2*

3) 金慶淑：家族間의 意思疏通에 관한 實證的 硏究；강릉지역을 중심으로. 關大論文集 *10*：*11-35, 1982*

4) 金慶淑：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과 結婚滿足度의 關係에 관한 硏究. 關大論文集 *12*：*75-89, 1984*

5) 金良喜：家族關係學. 서울：수학사, *1989*

6) 金恩淑：가족생활주기에 따른 意思疏通과 結婚滿足에 關한 硏究. 상명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7) 김은심：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8) 金仁淑：夫婦間의 의사소통類型 諸次元에 따른 結婚滿足度와의 關係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9) 김쟁산：夫婦間의 코뮤니케이션이 婦人의 結婚滿足度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김쟁산·전영수：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硏究報告 *9*：*89-101, 1983*)

10) 김정현：부부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소통가족치료이론적 접근；*V. Satir*의 이론과 치료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 金正姬：어머니와 子女間의 커뮤니케이션 形態와 子女의 自我槪念에 關한 硏究； 中·高校 男女學生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2*

12) 金鎭淑：어머니와 靑年期子女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硏究；對話內容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1*
(金鎭淑·劉永珠：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77-91, 1985*)

13) 大韓家政學會(編)：家政學硏究의 最新情報； 兒童學·家族關係. 서울：신광출판사, *1977*중에서 劉永珠：家族關係(*73-116*)

14) 大韓家政學會(編)：家政學硏究의 最新情報II；兒童學·家族關係. 서울：신광출판사, *1984*중에서 劉永珠·玉仙花·金明子：家族關係(*89-165*)

15) 杜慶子：家庭管理行動과 家族커뮤니케이션과의 關係. 論文集(상명여자대학교) *18*：*357-393, 1986*

16) 馬正健：家族치료와 家族의 커뮤니케이슌. 學生指導硏究(공주사범대학) *12*：*139-154, 1983*

17) 朴慶子：夫婦相互間의 意思疏通과 家庭生活幸福度와의 關係에 關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12*

18) 朴琪淳：가족커뮤니케이션. 社會科學(성균관대학교) *23*：*155-192, 1984*

19) 박민숙：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1*

20) 朴宗三 : 한미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갈등의 임상적 고찰 ; 사회사업치료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社會事業學會誌(한국사회사업학회) 4 : 1-13. 1982a

21) 박종삼 : 한미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갈등의 이론적 고찰. 崇田大學校 論文集 12 : 99-136. 1982b

22) 朴春雨 :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에 대한 행동수정론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11

23) 白仁淑 : 家族의 意思傳達形態가 青年期子女의 自我實現에 미치는 影響.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1

24) 昔鉉洋 : 家庭의 意思傳達形態가 青少年의 自我概念形態에 미치는 影響.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5) 송말희 :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송말희 · 이정우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 33-47, 1986

26) 宋聖子 : 韓國夫婦間의 의사소통類型과 家族問題에 관한 研究 ; 의사소통家族治療理論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朴聖子 : 한국 부부간의 意思疏通에 관한 研究. 女性研究(한국여성개발원) 3(4) : 49-75. 1985)

27) 愼良宰 : 父母의 言語的 相互作用方式과 兒童의 役割眺望能力과의 關係.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8) 辛玉順 : 어머니-아동간의 相互作用類型과 아동의 概念化樣式과의 關係.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2

29) 안병철 : 조은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논평. 韓國社會學 20(여름호) : 117-118, 1986

30) 吳蓮玉 : 思春期子女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 ; 中3學生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2

31) 王錫旬 : 夫婦間의 意思疏通不安意識과 結婚滿足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32) 元曉鐘 : 夫婦間의 意思疏通樣式과 意思疏通不安意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33) 尹政明 : 父母와 子女間의 對話活動에 關한 研究 ; 中學生을 中心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34) 李根厚 · 李東瑗 : 都市家族內의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에 關한 研究. 韓國文化研究院 論叢(이화여자대학교) 22 : 277-306. 1973

35) 이기숙 :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 167-187. 1988

36) 李錫炅 : 青年期子女와 아버지와의 對話에 관한 研究.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2

37) 李順炯 : 母子女間 相互疏通과 兒童의 感情眺望.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2

38) 李延燮 : 父母와 子女사이의 言語相互作用프로그램開發 研究.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5

39) 李貞順 : 夫婦間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一研究 ; 一致度와 理解度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40) 李貞順 : 夫婦間 커뮤니케이션과 結婚滿足度. 水原大學 論文集 3 : 559-572. 1985

41) 이정우 · 安童善 :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가정환경변인을 중심으로. 亞細亞女性研究(숙명여자대학교) 22 : 63-85. 1983

42) 이정우 · 安童善 :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II). 亞細亞女性研究(숙명여자대학교) 23 : 149-172. 1984

43) 李眞姬 : 어머니와 幼兒間의 言語的 相互作用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44) 李昌淑 : 韓國男便과 婦人들의 커뮤니케이션類型分類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李昌淑 · 劉永珠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 1-25. 1988)

45) 李香蓮 : 思春期子女와 父母와의 對話活動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46) 林炳朗 : 家庭의 意思傳達形態가 學生들의 政治的 態度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47) 張權花：女子中·高等學生과 父母와의 對話：光州·木浦地方을 中心으로. 論文集(광주교육대학) *20*：*351-366, 1980*

48) 張好善：父母－子女間의 開放的 意思疏通에 關한 硏究：青少年期子女를 中心으로.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9) 鄭用才：夫婦間의 意思疏通과 結婚滿足度와의 相關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50) 丁惠英：十代子女와 父母間의 커뮤니케이션에 關한 硏究：高等學校 *1·2*學年生을 中心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2*

51) 조 은：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 韓國社會學 *20*(여름호)：*103-115, 1986*

52) 趙殷卿：機能的인 家族의 커뮤니케이션에 關한 理論的 接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31-150, 1984*

53) 趙殷卿：家族의 커뮤니케이션과 權力에 關한 機能的 理論의 接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127-144, 1987*

54) 曺惠晶：夫婦間의 言語的 意思疏通에 關한 實證的 硏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5) 崔在錫：韓國家族硏究. 서울：민중서관, *1970*

56) 한국가족학연구회：가족학 논문목록. *1989*

57) 韓南濟：家族硏究의 성과와 문제점. 韓國社會學 *18*(여름호)：*46-70, 1984*

58) 許允英：男便의 커뮤니케이션理解度와 葛藤處理와의 關係.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9) 洪信禮：夫婦間의 커뮤니케이션과 結婚滿足度와의 關係.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金正玉·洪信禮：女性問題硏究 (효성여자대학교) *15*：*273-290, 1987*)

60) Burr WR & Leigh GK：*Famology；a new disciplin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467-480, 1983*

61) Galvin KM & Brommel BJ：*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Scott, Foresman and Co, 1982*

62) Hill R：*Status of research on families, 1900-1979 in Calhoun, et al*： *The status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Washington D.C.*：*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0*

63) Lin N：*The study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The Bobbs-Merrill Co Inc, 1973*

64) Weiten W：*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California*：*Brooks/Cole Publishing Co, 1986*